



# “미래의 양계산업을 주도할 막중한 임무가 있다”

언 제 : 1988년 10월25일 오후1시  
 어디서 : 본회 회의실  
 참석자 : 김영옥(제일사료 전무이사)  
           노영한(대한양돈협회 전무)  
           유상철(대한벌크터미널 운영부장)  
           안남신(대한수의사회 편집기획실장)  
 사 회 : 남두희(본지 편집부장)  
 정 리 : 함경숙 기자

사회 : 「월간양계」가 창간 19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어엿한 성년으로 변신해야 하는 기점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간호에서 밝힌대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처럼 일상생활을 통해 우리가 항상 갈망하는 바램이듯 「월간양계」도 태동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동안 「월간양계」와 인연을 맺고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역대 편집인들을 모시고 지난 과거를 회상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 및 그 역할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월간양계」를 창간하게 된 배경과 시대적 동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 양계경영에 도움되도록

김영옥 : 「월간양계」가 태동한 1960년대 양계업의 상황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기껏해야 250~500수 정도를 사육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상당히 목말라하던 상태였어요. 직접 기술을 배우고 익히면서 종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당시 축산을 전공하는 학생은 전국적으로도 250명 내외로 숫적인 면에서 매우 적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농림부)가 중농정책을 목표로 두고 내세웠던 구호자체가 ‘증산’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술적으로 목말라했는데 양계협회의 전신인 가금협회의 주요사업중 한가지가 장안동 축산회와 지방순회 강습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고 양계전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후 많은 양계인들 중에는 월례 강습회도 좋지만 양계잡지를 발간하여 전국의 양계인을 위해 새로운 기술보급과 시장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히 전달하여 양계경영에 도움을 주도록 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월간양계」가 창간하게 되었는데 창간사에서 밝힌 대로 첫째, 국내외에 새로 발표되는 연구논문, 기술개발 등 실제 양계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소개하고 나아갈 방향과 위치 등을 제시해 주고 둘째, 양계인 상호간의 대화의 매개체로서 양계인의 의사를 정부·관계요로에 건의하고 시책을 반영하는 일 셋째, 합리적 양계경영을 위해 양계업의 현황과 움직임을 정확히 판단하고 변화하는 시장동태의 전달 등이었습니다.

###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전달

노영한: 협회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사람이 모여야 하는데 점차 각자 생활이 바빠지고 문화가 발달하면서 모임을 갖기가 어려웠어

요. 지방에서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양계기술」을 만들었는데 이를 발전시켜 만든 것이 「월간양계」 창간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주요 독자층은 사료공장, 종계장 및 약품회사의 기사급들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히려는 양계인들을 50%, 선진경영관계를 익히려는 경영주 20%, 각종 관공서 및 농촌지도직에 근무하는 계층을 20%, 그리고 양계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10% 정도로 그 비중을 두었습니다.



▲김영옥 전무

### 협회를 사무실이고 집처럼 생활

유상철: 이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창간 19주년을 맞이했다고 생각하니 새삼스럽게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책을 받아보기 때문에 그 당시와 단절된 느낌이 전혀없이 맥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고 지금 책을 만드는 사람들과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 무척 흡족합니다. 저는 양계협회가 첫 직장이었는데 상당히 의욕적이었고 청운의 꿈을 안고 그런 마음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김영옥 전무님께서 제가 입사당시 편집부장이셨는데 젊은이가 비록 경험은 없어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여러번 좌절도 맛보았고 뜻대로 일이 성취되지 못한 적도 있었지만 그 후 사회생활을 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창간 당시 편집부장이던 김영옥 전무님께서서는 협회가 사무실이고 집처럼 생각하고 무척 바쁘게 생활하셨고 원고수집에서 취재, 광고, 수금, 심지어는 배달까지 모두 해야했는데 낮에는 원고쓰고 교정을 보았으며 퇴근 후에는 인쇄소에 가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해

## ■ 창간 19주년 기념 특집 좌담회/역대 편집인들 이렇게 생각한다.

야했죠. 그 당시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제날짜에 책을 내기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매달렸던 시절이었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가장 바빴던 시기로 개인적으로는 다른데서 짝을 찾을 여유도 없이 이곳에서 결혼까지 했습니다.(웃음)

아뭏든 매우 재미있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흥분될 정도로 그림고 애착이 가며 월간양계가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글을 쓰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양계업계의 전체



▲ 노영한 전무

적인 주변분위기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져서 작년에도 원고를 쓰다가 중단했는데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육계와 산란계로 구분해서 양계경영일지를 제작한 것인데 그 이전에 육추일지를 만들었는데 내용이나 체제면에서 부족해 내용도 새롭게 보완해서 대폭 증보했는데 첫해에 반응이 무척 좋아 그당시 업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회 : 70년대 「월간양계」 5월호를 들추어 보면 그때 당시에는 세명이 기획, 제작, 납품, 광고, 심지어 수금까지 도맡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힘든 점과 기억될 만한 에피소드도 좀 소개해주시고 그당시 편집위원회도 매우 활발한 역할을 담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요.

유상철 : 지금도 마찬가지로겠지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마감날짜에 원고가 도착되지 않아 끔끔 머리를 싸매고 채워야 했던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계를 하는 사람보다 현실적으로 양계에 대해 모르는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자료나 문헌을 참고해서 썼는데 그때 소홀했던 점은 실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볼 시간적 여유와 기회가 없어서 현장감이 부족했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실을 과감히 소개했는데 위험한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에는 너무 앞서

가는 것은 곤란하지만 약간의 선진기술이나 정보제공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초창기에도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대한 공헌을 한 바 있는데 학계, 업계, 단체를 대표로 하는 인물들로 오세정, 신정재, 임병규, 김영환, 한인규, 박근식씨 등이었습니다.

사회 : 양적인면 즉 외형적인 면에서 볼 때 창간당시는 본문이 50~60페이지에 불과했으나 1975년에는 120~130페이지로, 다시 5년 후인 1980년에는 180~190페이지로 대폭 증면되어 14년만에 3배의 성장을 보였는데 제2도약기로 볼 수 있는 70년대 후반의 상황에 대해서 안실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안남신 : 77년 2월 대학졸업후 첫직장이 양계협회였는데 노전무님이 사무국장을 맡으셨고 편집은 이흥재 부장님과 편집부 직원 세명이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곧바로 월간양계를 만든게 아니라 1년간 한국양계제작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일이 끝나갈 무렵 편집부 직원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노전무님께서 편집국장으로 오시면서 제가 월간양계를 본격적으로 맡게 되었죠.

77년 2월부터 81년 4월까지 근무했었는데 제가 근무하는 동안 양계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일대 전환기를 맞았고 도약단계를 거치지 않았나 싶은데요. 76년에 86만톤이던 양계용 사료생산량이 4년만인 80년도에는 187만톤으로 증

가하여 불과 4년사이에 거의 220%로 증가할 만큼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위생, 시설, 사양관리, 경영, 양계산물 수급관계 등에 대한 질적인 발전이 밑바침이 되어주질 못했어. 따라서 월간양계의 사명이 매우 막중해진 시기였습니다. 본문도 90여페이지에서 140페이지 이상으로 증면시켜야 했고 광고 역시 이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좋은 원고, 좋은 기획을 위해 하루종일 동분서주해야 했습니다. 전보다 인원도 줄어든 상태에서 고생하며 공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영한** : 초창기에는 경제적으로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으나 74년부터 77년까지는 상당히 슬럼프에 빠져 재정적으로 매우 곤란을 겪게되어 미처 원고료를 주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78년 6월호를 기점으로 해서 볼륨이 커졌고 내용면에서도 괄목상대할만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사회** : 그당시 경제적인 불리함을 타개하기 위해 협회에서는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기타 발간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남신** : 제가 입사하기 전에 당시 회장이던 오세정 교수님께서 한국양계 발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상해서 이미 학계원로들로 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고 그 내용

도 어느정도 결정하여 양계 20년사를 정리해 보자는 의미로 추진되었습니다.

그후 '78년에 창간 9주년을 맞이하면서 「월간양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양축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발간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원색질병전서와 육계와 산란계로 구분된 경영일지를 발간했는데 하나도 적자를 본 것이 없이 재원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회** : 기간중 산업의 양적팽창에 따라 월간양계지도 제2의 창간을 시도해 업계의 대변지 뿐만 아니라 업계를 선도하는데 사명을 다했다고 봅니다. 편집자들은 물론 젊은 양계 엘리트들로 구성된 편집위원들의 조언이 상당히 큰 작용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안남신** : 편집위원 제도가 활성화된 것도 제가 근무할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중에서도 잡지의 기능을 특별히 이해하고 열심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신분들로 이루어진 편집위원회가 매달 열렸는데 편집위원회가 개최되는 날은 저 자신이 한꺼번에 많은 요구와 질책으로 매우 피곤한 적도 많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단시간내에 많은 공부를 했고 또 그럭저럭 일을 끝어나갈수 있었던 것도 편집위원 덕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별히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로 지금 기억에 남는 분들이 김

영환, 김인식, 김정인, 신정재씨 등이 매일같이 항상 와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편집부 직원의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집위원회를 백분활용하는 것이 잡지제작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는 강조합니다.

**사회** : 현재 월간지를 나름대로 분석한 문제점으로 첫째 국내의 기술소개에 인원이거나 시야부족으로 인한 고정된 집필진과 경직된 편집기획 둘째, 양계인을 위한 정책수립에 대한 제언 부분의 미비로 판료적이고 공공단체의 기관지 같



▲유상철 부장

은 인산을 갖는점 세제, 각종 통계나 시장정보의 구태의연함 등으로 현장감각이 부족해서 양축가들이 실제로 겪는 고충이나 실상에 대해 적나라하게 파헤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더많은 지면할애가 있어야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발전저해 요소를 어떻게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지, 그리고 「월간양계」가 앞으로 나가야할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노영한 : 제가 잡지에 직접 손을



▲안남신 실장

대기 시작한 것이 78년도부터니까 88년 금년까지 꼭 10년간 관여했는데 계속 발전할 수 있었던 점은 그때의 양계산업만이 독자적으로 양적인 팽창과 함께 발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산업이 1978년을 계기로 모든 산업이 고루 발전한 시대였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79년과 80년에 잡지가 발전했다는 것이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는 축산발전이 곧 경제발전으로 이어졌던 시대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축산이 빨리 발전해야 경제가 발전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는 경제발전을 위한 필요한 자본이 해외투자로 이루어졌는데 그중에서도 외국에서 원조되는 잉여농산물이 있었기때문에 자본축적을 위한 축산이 필요했었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등 각종 세제를 면제해 주며 강제적으로 외형을 늘리던 시대였습니다.

1970년대는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축산물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물가안정 차원에서 축산발전이 곧 경제발전으로 이어졌는데, 1980년대부터 그 여건이 변화되어 축산억제가 곧 경제발전이라는 새로운 시각이 생겨났습니다.

적어도 연간 8% 정도의 경제성장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출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수출을 하자니까 이제는 외국에서

축산물의 수입개방 압력이 점차 강해져 축산업의 규모를 축소시켜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양계산업이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해 잡지가 그 변화에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78년도에 현명하게 조화를 이루며 적응했고 그냥 시 다른 잡지도 있었지만 「월간양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음에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는 사료, 부화, 동물약품 산업이 대형화되어 기술정보는 그 쪽에서 담당하고 업계를 똑바로 직시할 수 있는 안목과 정책개발, 대화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합니다. 이는 전반적인 업계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적응하면 잘 만든다는 얘기가 되고 늦게 적응하면 욕구충족이 안 돼뒤떨어지게 되는데 보다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계속 발전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편집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에 맞는 편집위원을 위촉해서 기술측면은 물론 농업경제학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면에도 관심을 갖고 귀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양적 발전을 위주로 해왔지만 앞으로는 분배원칙 같은 사회적인 측면, 즉 정치경제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그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토지, 노동, 자본

중에서 토지와 자본에 투자한 사람에게 분배가 거의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노동쪽에 분배가 많이 이뤄져야 하며 이에 대한 관심도 넓어져야 합니다.

**사회** : 각종 신문과 잡지의 홍수시대에 서 있는 「월간양계」도 이젠 확고한 제 위치를 찾아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술적인 면은 사보가, 정보의 신속성은 주간지나 특수일간지가 각각 분담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양계전문지인 「월간양계」가 서야할 땅이 점차 좁혀져 일부에서는 확실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 체중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안남신** : 저는 가끔 다이어트라는 말을 하는데 창간 19주년까지 이끌어 온 잡지라면 그 면수에 대해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기본면을 70페이지 이상으로 정해놓고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는 증면하고 또 없으면 줄일 수 있는 자세로 지면수를 활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메꾸기식의 기사와 또 거의 비슷한 내용을 채 2년도 되기 전에 다시 게재하는 매너리즘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의 잡지를 접해보면 지면수에 대해 상당히 자유로운 것 같았습니다.

**노영한** : 주간지는 주간지로서의 역할이 있고 월간지는 월간지로서의 역할이 있듯이 월간지는 깊이 읽혀지고 오래 기억되는 기사를 게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사적인 면이나 발행부수면에서 불리하다

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전반적인 수준을 한 차원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축산발전이 질적인 개선으로 바뀌어가는 시기니까 시기적절한 내용을 깊이 있고 밀도있게 다룬다면 월간지는 계속 존재,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잡지 만드는 사람이 양계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과제가 동반됩니다.

**사회** : 시대의 한 한업의 정신적 지주로 잡지는 편집자의 주관이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업계의 의견이 더 깊게 반영돼 범양계인의 여론조성의 중추신경이 되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유상철** : 무엇보다도 「월간양계」가 제 위치를 지키며 발전하려면 어떤 문제가 부각되면 사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취재, 보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달 1~2건을 집중적으로 다룬만한 기사소재를 발굴해 그 문제가 직접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한 이슈를 부각시켜야 합니다. 또 제목 자체가 독자들로 하여금 읽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하며 이를 위한 테크닉도 필요합니다.

**김영옥** : 월간양계가 통권 229호를 내면서 사양관리나 질병관리와 같은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소비유통경영 쪽에 초점을 맞춰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보지 이상의 차원을 뛰어 넘어 정부의 정책의 종전의 증산에서 유통으로 변화된 것에 발맞춰 시각을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노전무님도 말씀한 바와 같이 국민들의 여론을 수용해서 앞으로는 기술자이면서도 유통을 공부할 사람이 많은 원고를 집필 경제 즉 시장경제에 대해 다뤄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곧 경제의 민주화에 따른 잡지의 창간목표도 변화되어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면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각종 정보를 가공, 분석해서 기사화해야 하며 진정 독자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 심오한 뜻 (Behind Story)을 전달해야 하며 미래에 대한 뚜렷한 방향설정을 해주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 오늘날 그동안 선배들의 노력으로 반듯한 길을 닦아놓아 알찬 열매를 거둬들이며 풍요롭게 향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혜를 모아 더욱 풍요로움을 간직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계